



인도의 어느 날

봄비나를 퍼 날때 비가 개이며 무지개가 떴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모두 푸근한 마음으로 고라푸르에서 1박을 했다. 다음날 바라나시로 향하건중 조그맣고 경쾌로운 한 마을에서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 어느 한적한 곳에서 이빨을 펴고 캔버스를 세우고 준비를 하는데 동네 꼬마들이 어느새 경계심을 풀었는지 하나 둘 모이기 시작했다. 의자에 앉았으니

그림이 있는 불교 에세이

서 있던 아저씨 아줌마가 그림에 등장하자 목소리들이 커지며 따들기 시작했다. 그때 일행 중 한분이 지나가다 사진을 찍어주시니 모두 좋다고 '포토! 포토!' 하며 까르르 웃는다. 한 녀석은 그 와중에 슬금슬금 이빨에 손대고, 청바지도 만져보고 하더니 기어코 파레트에 적 놓은 물감을 손에 찍었다. 웬만큼 그림이 된것 같아서 현자 사진을 찍고 짐을 정리하

호기심 많은 순박한 동심들 아련

많은 아이들이 나를 마주보고서서 '카우롱' '깜빡깜빡' 한다. '무엇을 하러나?' 하는 눈치였다. '오 녀석들이 뭐가 보여야 그림을 그리지?' 하고 중얼거리는데 지나가던 미스터 길이가 '꽃' '꽃' 하며 땅에 돌맹이로 글을 그었다. 그리고 모두 그 글위로 새겨하고 조그 큰 아이를 보초로 세웠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자 '아~' 하고 이해가 되는 듯 하더니 저희끼리 늦게 뛰어나온 아이들을 통재했다. 나무를 그리고 짐을 그리고 하나씩 소곤소곤 거리다가 멀리서 아이들을 감시하는 듯 보고

는데 제법 큰 아이가 이저저것 집어주며 거들어 주었다. '나바스테! 고맙다' 하며 모두에게 가지고 있던 사탕을 나누어 주었다. 네 어떤 어린아이는 계속 형님 뒤에 받음 숨은 채로 손만 내밀었다. 인도여행길에서 그런 그림에는 그 호기심 많은 순박한 눈동자들이 늘 함께 한다. 도란도란 속삭이던 목소리들과 슬쩍 모자를 건드려보던 손길도 함께 한다. 나중에 그때 찍은 사진을 받아보니 내 뒤에 늘어선 아이들은 뽀뽀나 되었다. 승경희 (서양화가)

선재들의 합창 ③ <글>

아무리 넉넉한 부자라도 알부민으로 언제까지나 치료를 마칠 수 없다는 것을 알게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알부민 대응으로 '발보트'란 약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그러는 사이에 병식이야는 자꾸만 어려워 갔다. 부처님의 보살림으로 병식이야가 나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던 그날도 병식이야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세가지를 시내에서 사와 급한 일로 재활원으로 먼저 가게 되었다. 짐살을 걸었던지라 과자중 한가지를 우선 먹고 나머지 두가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다시 갔다. 이른날 나는 간호사로부터 병사들이 가득 돈 우리병을 꼭 쥐고 눈을 감았다는 병식이야의 죽음을 전해 들어야 했다. 저 세상 별나라로 갔다...

그날 내가 어린아이처럼 먹어버린 병식이야의 과자를 생각하면 큰 빛을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병식이야와 그런 인연이 있고 난 뒤 나는 언제일런지는 모르지만 이 모든 '업'을 칠칠 철철 버릴 때까지 내가 선택한 길을 열심히 가려고 다짐하고 있다. 이곳에 터를 잡고 이렇게 재빨리 흘러간 세월과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하였으나 아직은 울도 담도 없으며 큰 대문도 없다. 그러나 우리 천마의 아이들은 용하게도 함부로 집밖에 나가지도 않는다. 어쩌다 선생님들께 구경을 듣거나 자기들끼리 다들 모여서 나가고 싶으면 반드시 나에게 온다. 왜냐하면 나가는 자신을 내가 잃히 볼까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이것이 우리 천마재활원의 불문율처럼 전해져 오고 있다.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붙잡지 말라'는 불가의 관습대로라면 재활원의 식구는 아마도 졸졸남쪽이 되었을 것이다.

백오십명 정도의 천마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바닷가 커다란 바위에 서로가 굳게

동처서 살면서 심한 바람에도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휩쓸려 떠내려 가지 않는 형상이라고 할 수 있다. 엄마(천마의 아이들은 나를 이렇게 부른다)가 나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못나가게 한다는 유래는 수년전의 어떤 일에서부터 비롯되었다. 그때는 지금처럼 중증요양 시설이 없었으므로 재활원에는 기저귀를 하고 누워있는 아이가 삼십명 남짓되었다. 선생님들도 두척이나 인내력과 한계선상까지 도달하였고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그 많은 기저귀를 씻어낼 사람이 없었다. 기저귀 세탁을 위해 대형 세탁기를 길상알 스님과 힘을 모아서 구입하고 매일 삼백오십장

주부신행담

이나 되는 기저귀를 씻어냈다. 천마재활원에는 착하고 일 잘하는 행기라는 지금은 어엿한 청년이 된 아이가 있었다. 처음 70년대 초에 왔을 때는 정신분열환상이 있었고 한번 탈원하였다가 마침 충무동 로타리를 지나가는 나에게 발견되어 거지같이 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지금까지 여간 잘 잊지를 않는다.

그런데 그 기저귀를 세탁하는 일이 행기의 몫이 되었는데 어느날 나의 책상위에 편지 한장이 놓여있어 읽어보니 행기의 편지였다. '얼마 빨래 너무 많다. 나는 간다'라는 뼈뼋뼋하게 쓰여진 행기의 편지였다. 그리고 주위에

그만 보따리를 만들어 주면서 나가라고 하였다. 너 얼마를 받아두고 얼마에 일사를 해야 된다면 결국은 나가게 된다는 일도 있었다.

우리 천마의 아이들은 울보 엄마가 자기들이 나가면 온다는 것이 편지 마음에 가서 달는가 보다. 요즘에도 행기는 중사관에 잡역으로 가서 일하고 있지만 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그 뒤에는 엄청난 나의 책임이 도사리고 있다. 그것은 결혼을 시켜서 조그만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는 일이다. 벌써 몇년전부터 그 걱정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행복한 묘안이 있을 턱이 없는 나는 풍도사로 월하 종정스님을 찾아뵙고 스님들께 후원회원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랐다. 큰스님은 친히 일년분 후원금도 주셨다. 그러나 그후 어느 스님에게도 가보지 못했다. 별로 잘 살지도 않는 살림살이에 이리저리 연연하다 보니 북쪽 털고 나가지가 그리 엄지 않았다. '하기는 잠을 곤하게 자고 있지만 끝까지 울음소리 많이 들려서 다 못한 굴바구니 머리에 이고 엄마는 모래길을 달려옵니다' 라는 한인현님의 '살림살이' 2월 기사처럼 정말이지 이제는 끝까지 울음소리에 마음이 설레이지도 않고 더 못한 굴바구니에 글을 한껏 채워서 짐으로 돌아오는 배낭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에 와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눈덮인 킬리만자로의 봉우리 가까이 누가 에누기라는 신의 집이 있다고 한다. 말라붙은 한이리 표범의 시체가 놓여 있다고도 한다. 불사위한 표범의 시체, 생활의 방랑객 각을 잃었는지 놓고 빛나는 곳을 향한 이상적 죽음의 결말은 자금처럼 공허한 내게 가슴깊이 와닿고 급하고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번씩 가슴으로 새기는 이야기로 삼고있다. 박근연 (부산 천마재활원 원장)

백오십명 정도의 천마가족이 살아가는 모습은 바닷가 커다란 바위에 뭉쳐 살면서 파도에도...



풀어보니 행기는 정말로 가버린 것이었다.

나는 그 편지를 몇 번이고 읽고 또 읽고 아이들이 보는 줄도 모르고 울고 또 울었다. 어찌된 일인지 이틀이 지난후 행기는 다시 돌아왔다. 이유는 엄마가 물어서 돌아왔다고 했다. 그후 동근이라는 아이가 너무도 선생님 말을 안듣고 애를 먹이니가 선생님이 조

◆ Discontented are some pabbagitas(ascetics) also some gahathas(householders) dwelling in houses; let one, caring little about other people's childre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영어로 배우는 경전** **숫타니파타** ⑧

◆ Removing the marks of a ghin(a householder) like a Koviara tree whose leaves are fallen, let one, after cutting off herocally the ties of a ghin,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숫타니파타** ⑧

◆ If one acquires a clever companion, an associate righteous and wise, let him, overcoming all dangers, wander about with him glad and thoughtful. **숫타니파타** ⑧

◆ If one does not acquires a clever companion, an associate righteous and wise, then as a king abandoning his conquered kingdom, let him wander alone like a rhinoceros. **숫타니파타** ⑧

rhinoceros. 그러나 현명하고 올바른 벗들을 만나지 못하면 왕이 정복했던 나라를 버리고 돌아가듯 코뿔소처럼 혼자서 가라.

ascetic 고행지, 수행지
remove 제거하다
abandon 포기하다

현명우 기자

“ 좋은 품질이 편안함을 만듭니다 ”

GRAND FANTASIA

그랜드 침대, 이래서 좋습니다

침대 전문 회사 30여 년 간의 전통과 기술을 바탕으로 좋은 침대를 위한 한걸음도 고민해 온 전문 업체입니다.

좋은 품질, 편안한 가격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지폭에 25mm 강선을 사용한 하드 스프링 공법으로 케코되어 가장 좋은 품질의 침대를 생산하고 있으며, 또한 합리적인 가격대로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 매트리스 사용 각기 다른 2개의 매트리스 사용으로 압력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으며, 수명이 25년 연장되기 때문에 경제적입니다.

다양한 모델 전문 회사만이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갖추고 있으며 한 모델마다 선택의 폭이 넓어 더욱 자유롭게 개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꿈의 나라를 편다 **그랜드침대**

● 본사: 경기 파주군 장단면 마장2리 180-18 **홈** **스타**
● 전화: 0348-945-2233 / 팩스: 0348-945-9607

생탈속의 불교 ③

취미란에 '살생' 이라고 적는 사람

남의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이 생각한다면 살생할 일이 없다. 남의 물건을 내 물건 같이 생각한다면 도둑질할 일이 없다.

생명은 다 같다. 물고기 생명이나 사람 생명이나 차이가 없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은 무엇보다도 제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 그리고 평안과 자유를 위해 피눈물 나는 노력과 투쟁을 한다. 자원의 눈앞이만 다를 뿐 생명이 겪는 아픔은 사람과 축생·미물이 다를 바 없다.

부처님께서는 나와 남의 생명을 둘로 보지 말고 가르치셨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웃을 내 몸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친다.

남·이웃은 사람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생명 있는 모든 것. 나아가서는 무정물까지 나와 상대되는 만유(萬有) 일체를 말한다. 그러기에 대자대비인 것이다. 조건 없는 자비, 조건 없는 사랑인 것이다.

무엇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를 내어주는 것이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온연중에서도 대가를 바라다면 그것은 욕심이다. 자기식의 관념·질학·이해관계에서 출발한 조건 붙은 사랑이다. 남·여의 사랑은 대체로 그런 꼬리표가 붙은 사랑이다. 따라서 진정한 사랑이라 말할 수 없다.

진정한 자비, 진정한 사랑이란 '나'를 비운 사랑, '나'를 비운 자비를 말한다.

꼬리표가 붙지 않은 자비·사랑을 통해서 사람은 거듭 날 수 있다. '나'를 비우는 일이지 자비·사랑은 '과거의 나'를 다시 인식케 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 '나'를 다시금 적시하게끔 해준다. 아니 해주고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절로 그렇게 된다. 나의 욕심·이해관계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눈이 저절로 바뀌게 된다. 고로 자비와 사랑은 번뇌·욕심·고통·악 따위를 녹여주는 영묘한 만병통치약인 것이다. 고해를 건너게 하는 바라밀의 배인 것이다.

살의 목적은 진화를 통한 자기완성에 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이 그 목적이었고 가르치셨다. 해탈에 이르는 진화의 과정, 그것이 살의 길이요 살의 목표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그 길이 '자기 비움'에 있다고 하신다. 수행이라는 것은 '자기 비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렇다

면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자기 비움'을 실천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은 무척 어렵다고 한다. 수행적 행위도 쌓인 관념의 때(垢)가 그만큼 두껍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기 비움'의 비교적 쉬운 길이 있다. 바로 생생사상, 이웃사랑이다. 그것은 마음 먹기에 따라 바로 실천할 수 있다.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아끼는 일은 쉽다. 살생을 그만두는 것만으로도 이미 실천은 시작된다. 그리고 나아가 이웃을 사랑해보라, 작은 일, 큰 일 따지지 말고(따림은 관념이다) 이웃에 대한 헌신, 이웃과의 나눔을 실천해보라.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그 공덕의 샘을 말씀하셨다.

협찬: 원은섬

법명의 생활지·연대지·세계지